



‘괴물’ 류, ML 최고 영건 하비와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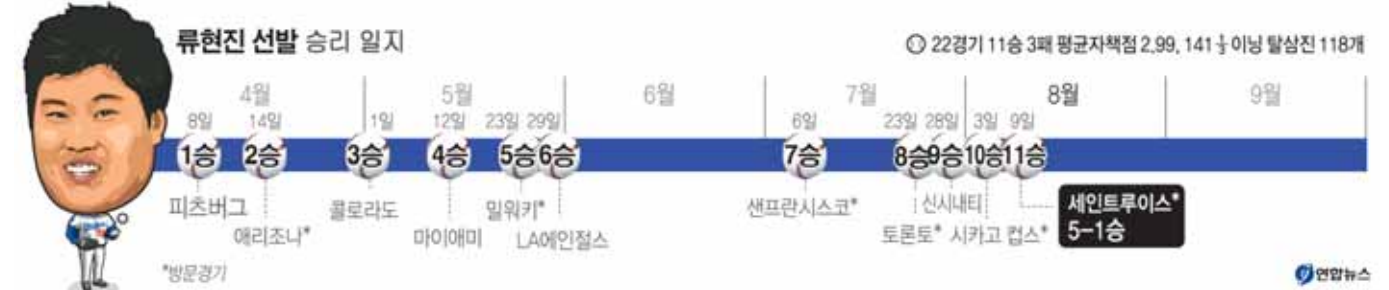
(현진)

카디널스 제물로 시즌 11승 수확이어

14일 오전 23번째 선발 등판... 메츠상대 12승 사냥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 프로야구 최고 영건으로 떠오른 맷 하비(24·뉴욕 메츠)와의 불꽃튀는 선발 대결로 팬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류현진은 14일 오전 11시 10분(이하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츠와의 홈경기에 시즌 23번째 선발 등판한다.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제물로 5연승과 함께 시즌 11승(3패)째를 수확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2.99로 떨어뜨렸다. 다시 방어를 3점대로 올려가지 않

도록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메츠와의 경기에서도 실점을 줄여 방어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2승 달성 여부와 더불어 류현진은 하비와의 어깨 대결을 통해 투수전의 백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빅리그 생활 2년째로 신진급에 속하는 우안 하비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중 가장 빠른 평균 시속 154km짜리 광속구를 던져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쌍벽을 이루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매긴 젊은 영건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달린 그는



직구와 최고 시속 146km에 이르는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던져 풀타임 선발 첫해인 올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9승 3패,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한 하비는 10일 현재 내셔널 리그 탈삼진(178개), 이닝당 출루 허용률(WHIP·0.86)에서 커쇼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를 독주하고 있다. 타선지원을 떠나 류현진이 홈에서 강한 이점만 살려도 하비와 충분히 맞설 수 있다.

류현진은 다저스타디움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83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둬 6승 4패, 방어율 1.59를 기록한 커쇼에게 버금가는 성적을 냈다.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위력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편 최근 승승장구하는 LA 다저스가 류현진 등 선발투수진의 호투를 앞세워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예측이 나왔다. 켄 로즈솔 칼럼니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스포츠에 게재한 칼럼에서 "선발 투수진이 튼튼한 다저스가 내셔널리그(NL)의 다른 모든 팀을 제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즈솔은 다저스 선발투수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류현진에 대해 "위험적인 3선발"이라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 KIA의 전신인 해태 시절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꽃미남’ 홍순상 2년만에 정상 통산 5승 달성

‘파인비치 오픈’ 19연더파 우승

‘꽃미남’ 홍순상(32·SK텔레콤)이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홍순상은 11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7351야드)에서 열린 ‘솔라시도-파인비치 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함께 19연더파 269타를 적어냈다.

홍순상은 2011년 9월 먼싱웨이 챔피언십 이후 다시 우승컵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6000만원.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던 김태훈(28)을 비롯해 이태희(29·러시앤캐시), 문도엽(22), 류현우(32)가 끝까지 추격했지만 1타 모자란 공동 2위(18연더파 270타)에 머물렀다.

2007년 X컨버스 오픈에서 KPGA 투어 첫 승을 올린 홍순상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2013년까지 홀수해에만 우승하는 인연 맺었다. 2위 그룹에 1타차로 앞선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홍순상은 짧은 버디 퍼트를 여러 차례 놓쳐 중반까지 선두 자리를 내줬다. 홍순상이 우승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은 14번홀(파4)이었다. 퍼트가 들어가지 않아 속을 태웠던 홍순상은 이 홀에서 3m 거리의 버디를 넣어 선두보다 1타뒤진 공동 2위로 올라섰다.

16번홀(파4)에서 2.7m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공동 선두로 발돋움한 홍순상은 17번홀(파5)에서 승부를 걸었다. 김태훈, 문도엽, 류현우가 18연더파 270타로 먼저 경기를 끝냈기에 17번홀에서 버디가 꼭 필요했다. 두 번째 샷을 그린 앞까지 보낸 홍순상은 어프로치 샷을 홀 1.5m에 붙였다.

동반플레이어 이태희가 먼저 버디를 잡아 또 한명의 공동 선두가 나온 상황에서 홍순상은 버디 퍼트를 성공, 단독 선두로 나섰다. 홍순상은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로 불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퍼트로 마무리,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KIA가 무너졌다 팬들을 위한 ‘검·빨 데이’ 팬들이 외면?

김주찬 또 부상... 엔트리 말소
 외야 붕괴 4강 불씨 가물 가물
 벤치 위기 관리 능력 도마위에

‘위기의 외야’가 무너졌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주찬이 11일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2주간 재활치료 및 훈련을 하게 되면서 복귀에는 최소 3주가 필요할 전망이다. 삼성과의 홈 경기가 열린 10일, 1회초 1사에서 삼성의 2번 타자 박한이가 친 타구가 좌중간 담장을 향해 날아갔다.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던 김주찬이 전력으로 질주를 했지만 공을 잡아내진 못했다. 안치홍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1사 1·2루, 이승엽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KIA가 1회 실점 위기는 넘겼지만 김주찬은 타석엔 서지 못했다. 오른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호소한 김주찬은 2회 타석에서 이준호와 교체됐다. 지난 4월 개막 후 5경기 만에 왼손목 골절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김주찬의 두 번째 부상. KIA 우승 행보에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주찬은 결국 47경기에서 타율 0.304 28타점 23도루의 기록을 남기고 다시 재활군 신세가 됐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으로 겨우 꾸려가던 외야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상 도미노 속에 외야는 위기의 땅이 됐다. 김상현의 트레이드 이후 김원섭이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을 기억할 수 없게 되면서 외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용규가 어깨 부상으로 수비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용규가 지명타자로 출전하게 되면서 공격에 주력해 왔던 4번 타자 나지완이 수비까지 소화하는 등 힘겨운 여름을 맞았다. 처음으로 공·수를 풀로 책임지느라 나지완의 체력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 김주찬은 공·수·주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느라 결국 다리에 무리가 오고 말았다. 신종길이 묵묵히 공·수·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야의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로 ‘신종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길의 부상 위험도 남아 있다. 신종길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지만 여유롭게 외야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부담을 안고 경기를 뛰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외야의 붕괴 속에 이준호와 이종환이 기회를 얻었지만 각각 공격력과 수비력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멀어져 가는 4강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KIA에게 찾아온 새로운 약재. 시즌 내내 낙점받은 벤치의 위기 관리 능력이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후반기 계속된 추락에
 주말불구 관중석 썰렁

11일 KIA 선수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검정 바지에 빨간 상의 그리고 검정 모자, 울드 유니폼데이 행사가 열리면서 V9의 업적을 이뤘던 선배들의 모습으로 경기에 나선 것이다. 다양한 유니폼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를 중심으로 다른 구단들은 팬서비스로 종종 유니폼 이벤트를 열고 있지만 KIA에게는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 또 올 시즌 우선으로 두 번이나 행사가 미뤄졌던 만큼 팬들

개는 많이 기다리던 날이었다. 선수들에게도 색다른 유니폼을 입어보는 편히 신나는 이벤트이기도 했다. 훈련 시간부터 검정 헬멧이 경기장에 등장했다. 안치홍·박기남·최희섭 등은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검정 헬멧을 쓰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더워서 어떻게 경기를 해야 하나’ 걱정하던 것과 달리 경기를 앞두고 덕아웃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처음 ‘전설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고, 모처럼 다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누가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어색해하며 웃 매무새를 다듬던 선수들과

스트레스 받아 새치 늘었다는 서재응 “김진우 탓”

① 덕아웃 말말말

▲이게 다 김진우 때문이야. 김진우 일로와 봐=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새치가 늘었다는 서재응, 전날 5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던 김진우가 지나가자. 서재응은 공이 좋았는데 승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후배에게 조언을 했다. ▲기사 좀 써주세요=서재응 옆에서 혼수를 두던 신승현, 김진우가 팔꿈치를 꼬집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김진우가 선배인 줄 안다면서, 고졸 출신인 신승현이 2000년, 김진우는 2002년 프로에 데뷔했다. ▲검정색 쓰니까 귀엽네=신승현, 타격 훈련 시간에 몇 명의 타자가 검정 헬멧을 쓰고 훈련을 하고 있다. KIA는 삼성과의 홈경기가 열린 11일 울드 유니폼 데이 행사를 열면서 ‘검발 유니폼’과 검정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를 했다. ▲형 그냥 짐수를 해요=김주현, 박기남이 훈련이 끝난 뒤 아이스 박스에 있는 얼음물

를 계속해서 얼굴에 붓고 있다. ▲식혀서 나와야겠어=검정 헬멧을 챙겨 들고 라커룸으로 향하던 박기남, 헬밭에 헬멧이 뜨거워졌다. ▲누굴 하마로 아시나~=나지완, 정회열 코치가 자꾸 물을 권하자. ▲다른 게 더 더웠지=대구 홈경기에서 한화에 2-14패를 기록한 뒤 광주 원정을 온 삼성 류종일 감독, 대구 날씨보다 카리대의 피침에 더 열이 났다며,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카리대는 첫 선발 등판에서 1.1이닝 6실점을 기록한 뒤 팔꿈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